

‘택시와 상생’ 타다 프리미엄, 지원확대 등 진입장벽 낮춰

“무죄판결 후 사회적책임 실천”
수수료 면제, 차종 다양화 등
상생안 계획 수립, 내달 시행

프리미엄 가입문의 10배 늘어
차량 최소 1000대 확보 목표



타다 프리미엄 차량 모습.



/타다

최근 ‘불법 콜택시’ 오명을 벗게 된 타다가 택시와의 상생이 나서며 모빌리티 시장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택시업계와의 마찰을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3일 타다는 “법원의 무죄판결 이후 첫 행보로 택시와의 상생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실천한다”며 “국민의 이동 기본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타다는 ‘타다 프리미엄’에 대한 장벽을 대폭 낮춘다. 프리미엄 차량 구매 시 지원금을 확대하고, 플랫폼 수수료 면제, 차종 다양화 등 기존 택시와 다른 신규 이동 수요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시 상생안 확대 계획을 수립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타다 프리미엄은 K7 세단 차량을 이용한 고급차량 호출 서비스로 최대 4인까지 탑승 가능하다. 앱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면 예상요금, 경로, 예상 도착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호출을 시작하면 운행 가능한 가장 가까운 거리의 차량이 바로 배차된다. 타다 프리미엄의 기본요금은 5000원(2km)이며, 이후에는 도착지까지 100m 당 122원의 거리요금과 30초당 154원의 시간요금이 함께 계산된다. 지난해 7월 서비스를 개시했다.

타다는 새롭게 프리미엄에 가입하는 개인택시 운전자와 택시법인이 차량을

구입할 경우 1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K7 세단 차량으로만 제공하는 차종도 다양화한다. 이와 함께 프리미엄 서비스 개시 후 3개월 동안 플랫폼 수수료가 면제해준다.

프리미엄 차량은 택시 면허를 보유한 개인택시와 법인 택시만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확장한다는 것이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늘린다는 걸 의미한다. 타다는 현재 90여 대에 불과한 프리미엄 차량을 최소 1000대 이상 확보한다는 목표다.

타다 관계자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타다 서비스에 대한 무죄판결 이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사업자들의 프리미엄 가입 문의는 판결 이전 대비 최고 10배까지 늘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타다는 기업의 수행기사, 고객 의견, 공항 이동 등 매출이 높은 고급 수요에 프리미엄에 우선 배정, 드라이버들의 수입 확대를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타다는 택시운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법인택시 운행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11인승 호출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에서 근무를 희망할 경우 채용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현재 타다 베이직 드라이버의 약 25%인 3000여 명은 택시운전 자격증을 보유한 택시 운

행 경력자들이다. 타다가 법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상생 노력을 밝혔지만 난관은 남아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여야가 27일 또는 다음달 5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이르면 이번주 내로 타다 금지법의 운명이 정해질 전망이다. 4·15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택시 업계 반발도 거세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오는 2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고 타다의 불법영업을 규탄하고 임시국회에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중진공, 코로나19 피해기업 적극지원

수입선 발굴, 온라인 전시회 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적극 지원한다.

중진공은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 수입선 발굴과 함께 온라인 전시회 참여를 돕는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중국 내 지역 봉쇄 및 물류 제한 등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원부자재 수입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입선 발굴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거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 정보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제공 전문기업과 협력해 원부자재 공급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대체 수입선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 수출플랫폼인 ‘고비즈코리아’ 내 온라인 전시관 입점과 온라인 전시회 홍보, 마케팅도 무료로 지원한다. 전시회 등 오프라인 행사가 취소됐거나 대면 거래가 불가능해 해외 판로 개척에 차질을 빚고 있는 기업이나 마스크 등 위생용품 수요 급증으로 기회가 많았던 기업이 대상이다.

신청접수는 중진공 고비즈코리아에서, 내용 문의는 중진공 온라인수출처로 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코로나19 피해 中企 자금신청 1.3만건

소진공 준비자금 200억 불과
7617건 신청, 총 3980억 달해

지역신보 5363건, 1827억 접수
집행기업은 100곳, 34억 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관련 정부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몰림듯이 몰려들고 있다. 1주일여 만에 정부가 마련한 피해지원 정책자금 신청에 1만3000건이 접수된 것.

이 때문에 당초 계획한 예산 규모를 훌쩍 뛰어넘어 추가 증액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들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200억원 규모로 준비한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에는 지금까지 총 7617건의

신청이 몰렸다. 신청 금액만 3980억원으로 앞서 준비한 200억원은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또 이달 13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이달 20일 기준으로 5363건, 1827억원의 자금 신청이 접수됐다. 접수 시작 1주일 만에 신청액이 준비자금인 1000억원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100개 업체에 대해 34억원이 집행됐다.

소상공인 중에서는 음식·숙박·소매업종 등에 신청이 집중됐다. 중소기업의 경우엔 소상공인에 비해 신청 증가 추이가 더딘 편이지만 기계·금속 제조업체와 여행·레저업체들의 상담과 접수가 줄을 잇고 있다.

1050억원 규모로 특례보증에 나선 기술보증기금(기보)에는 20일 기준 82

개 기업이 167억원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신청 기업 중 70곳에 147억원이 집행된 상태다.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 중 기계·금속 제조업이 27건(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레저업 15건(46억원), 섬유·화학 제조업 13건(2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250억원 규모 지원자금을 준비한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는 34개 업체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을 상담했고, 이들이 희망 신청 금액은 9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담 업체 중에는 기계·금속 제조업이 65건(15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레저업 40건(108억원), 섬유·화학 제조업 40건(87억원), 자동차부품 제조업 30건(9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자금이 집행된 업체는 9곳으로 지원금액은 13억원이다.

/김승호 기자 bada@

가격·생산량 조절, 시장 교란 ‘엄격 금지’

중소협동조합 공동사업 기준 마련

공동사업을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절, 시장을 교란시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된다.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고시에서 열거하지 않은 공동행위에 대해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을 마련해 지난 21일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고시는 중기조합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대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지난 21일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정한 것이다.

특히,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를 담은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해당 고시에서 열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 조합들이 위법 여부에 대해 보다 수월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중 가격을 결정하거나 조합원의 생산량을 조절하고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등을 제한하는 경우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김승호 기자

한샘, 신제품 침대 50% 할인 이벤트

매트리스 3종, 침대 구매고객 대상

한샘이 2020년 상반기를 맞아 ‘홈족(Home+族)’을 위한 다양한 신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선보인다. 3월말까지 신제품 포시즌 매트리스 3종과 한샘 베스트 침대를 구매하면 침대에 대해 50% 할인혜택 등 이벤트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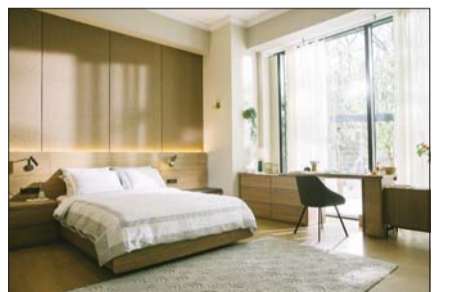
한샘은 침대, 매트리스, 소파 등 신상품을 자사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한샘디자인파크, 한샘인터리어대리점에서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유로 503 아트월’ 침대는 아트월처럼 고급스러운 벽판넬을 활용해 호텔식 침실을 꾸밀 수 있는 제품으로 무드조명, 핀조명 등 간접 조명이 아늑한 분위기

를 연출하고 콘센트, USB 충전포트, 조명스위치 등을 하나로 모은 통합 컨트롤러를 통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다양한 가구와 소품으로 자신만의 차별화된 공간을 꾸밀 수 있는 있도록 한 ‘유로 504 데코’ 침실은 협탁, 서랍장 등이 패키지로 구성돼 있고, 퀸(Q)사이즈 침대와 슈퍼싱글(SS)사이즈 침대 2개를 서로 연결해 패밀리형 침대로도 활용할 수 있다.

‘포시즌’ 매트리스 신규 라인업인 ▲포시즌 올인원 ▲포시즌 클린 ▲포시즌 구스 3종도 내놨다. 포시즌 올인원은 매트리스 전문 브랜드 ‘포시즌’의 모든 기능을 담은 제품으로 수면습관과 취향에 따라 부드러운 느낌의 ‘메모리폼 토



한샘 유로 503 아트월 침대(위)와 한샘 밀란 303 매트 박박이장.

퍼’, 탄탄한 느낌의 ‘포켓스프링 토퍼’ 중 선택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